

■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의의와 결산

광주 인권·평화·통일도시 세계에 알려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는 '5·18민중항쟁'을 세계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광주'를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인권·평화·통일의 도시로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난 17일 3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광주정상회의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 광주에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과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 세계 빙곤퇴치, 비핵화 등 범세계적인 학무를 다뤄 주목을 받았다.

광주가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단체 대표 및 국내외 저명 평화·인권운동가 100여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인 대형 행사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과 동시에 국제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반을 축축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세계 평화의 사도들은 광주정상회의를 총정리한 '광주 선언'에서 "한국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한반도와 세계의 민주주의, 평화를 위한 인류의 열원과 역사적 책무를 확인했다"며 이번 행사를 의미를 부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정상회의를 로마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그것도 지방에서 열게 된 것은 5·18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이번 행사가 5·18의 세계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보여줬다.

또한 아프리카 부채 탕감과 여성 인권 등을 강조해 5·18의 바탕에 흐르는 '나눔의 정신'을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로 남북한 간의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정상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수상 단체 대표들이 지난 17일 오전 '광주선언'을 발표한 후 서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매리엘린 맥니쉬 미케이커봉사위원회 사무총장, 론 맥코이 핵전쟁방지국제의학자기구 이사회 공동의장, 말콤 길리스 미국 라이스대 전 총장, 영국 평화운동가 모이라 코리건 미기르여사, 캐나다 환경운동가 왕가리 미타이 여사, 김대중 전 대통령,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이란 인권운동가 쉬린 에바디여사, 밀리안 골잘베스 국제사면위 사무국장, 파울로 코타 라무시노 피그워시회의 사무총장, 박광태 광주시장.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은 세계 민주주의 위한 역사적 사건

남북 화해·한반도 평화증진 크게 기여

회의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더욱이 정상회의가 열리는 같은 날, 동일한

지역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는 남북통일대축전이 함께 열려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

이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광주정상회의는 예산 부족과 준비 소홀 등으로 인해 지역행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예산(총 16억원)의 대부분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한 국제 VIP인사들의 초청 및 체류, 국제학술회의 등에 쓰여 행사가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국가적 행사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로 취급해 2억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준비 기간이 짧았던 점도 이번 행사를 전국적인 축제로 치르지 못한 요인으로 꼽혔다. 세계 평화의 축제로서 국가 차원의 행사로 치를 수 있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는 행사 자체를 잘 알지 못하는 이失利을 남겼다.

또한 경호와 의전 등을 이유로 행사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축소시켰으며, 학술회의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일반인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광주시민들의 행사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도 과제로 남았다.

더욱이 노벨평화상 수상자 중 참석자가 당초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 담임에야 공개하는 등 행사의 내실 보다는 규모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또한 광주시는 광주정상회의를 정례화하거나 광주를 컨벤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숙박시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것"이라며 "개별국가이자 지방도시에서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도 5·18정신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 미사일 문제 대화 통해 해결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의견에 대해 "북한의 (무력) 움직임이 탐지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좋지 않다고 북한지도부에 말하고 싶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지도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동북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상황이라도 극적인 상황으로 전개시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노벨상 정상회의 이모저모

고르비 "북핵 주변국 관심 가져야"

○…노벨평화상 광주정상회의 마지막날 행사로 17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회의실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대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과 영국의 평화운동가 모이라 코리건 마기드 여사가 참석, 전국 대학생 200여명과 대화를 나눴다. 패널로 참석한 대학생들은 한반도 통일,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다.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은 "남북 통일의 길은 한국사람들 손에 달렸다"며 "1980년 5·

18 항쟁은 자유를 위한 저항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남한의 대북 경제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제적 대북 지원으로 북한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6자회담과 함께 한반도 주변국들이 남북문제에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질 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18 세계 홍보 노력해야

○…이날 오전 4층 김대중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선언 발표 직전인 17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콘코스홀에 마련된 김대중홀을 찾았다.

DJ, 졸업앨범 등 보며 감회

○…광주선언 발표 직전인 17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콘코스홀에 마련된 김대중홀을 찾았다.

김 전 대통령은 10여분간 사진과 흥상, 핸드프리팅, 자신이 기증했던 목포상고 졸업앨범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을 둘러보며 짧은 시간이나마 옛 기억을 되살리며 감회에 젖었다. 그는 자신을 안내하던 임의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이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 수감 당시 보낸 손뜨개 양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자 미소를 짓기도 했다.

등